

“전국 최대 ‘사회적경제박람회’ 광주서 열린다”

市, 12~14일 김대중센터서 121개 부스 상품·체험관 운영 우수기업 특별관·학술 부대행사 등 마련...홍보 이벤트 진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주기업 78개, 전국 기업 15개, 정책홍보관 22개, 추석선물전, 상담관 등 전국 최대 규모인 121개 부스를 운영한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열리며,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무대공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추석선물 특별판매전, 학술행사, 부대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 부산, 인천, 대구, 강원, 전북, 장흥, 제주 등 7개 지자체 우수기업 초청 특별관을 마련,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예쁜소협동조합(가방·수공예품), 씨튼장애인재활센터(파이·베이커리), 디자인숨(홍보물품), 무지개공동회엄마우산산업(화장지), 엔아이디(인쇄출판) 등 78개의 광주기업들이 참여한다.

또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섬유향수, 친환경비누),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꽃새우, 보리새우), 대구 착한제품협동조합(홍계맛장소스), 강원 참좋은식품(오징어순대), 전북 임실생고을영농조합(치즈, 유제품), 장흥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김부각), 제주 금악협동조합(흑돼지소세지) 등 7개 지자체에서 총 15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특산품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학술행사는 12일 전남대 지역개

발연구소의 ‘사회적경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국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구’ 등이 진행된다. 13일에는 광주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적 모색’,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2024 별별포럼 SE기업가 정신’, 광산구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 가회적일자리 협력과 합’ 등이 열린다. 14일에는 조선대학교원 사회적경제학과 원우회 ‘광주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 다양한 포럼과 워크숍이 개최된다.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시민 아카데미 ‘가치톡톡 플러스’, 청소년 아이디어 발표대회, 청소년 사회적경제 골든벨,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ESG·마을기업 특별전시, 무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박람회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식품관에서는 물컵, 식기류 등 다회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음료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밖에 다양한 기념품과 박람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등 풍성한 현장 이벤트가 마련된다.

사전 이벤트로 오는 11일까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gjsec.kr)을 통해 박람회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등록한 선착순 500명에게 박람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이 제공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을 현장에서 증명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제3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해 지역 상생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가치를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로 풍성하게 준비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농협, ‘하늘이 내린 광양쌀’ 햅쌀 본격 판매...쌀 소비 촉진 운동에 앞장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은 세풍 간척지 계약재배단지에서 재배된 2024년산 ‘하늘이 내린 광양쌀’ 햅쌀을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양농협은 올해도 세풍 간척지 일대에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지난 4월 27일 첫모내기를 시작으로 8월 26일 첫 벼베기 후 건조와 가공 과정을 거쳐 햅쌀로 생산 되었다.

이번에 생산된 ‘하늘이 내린 광양쌀’은 윤기와 찰기가 좋고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이 적어 밥맛이 뛰어나 예전부터 추석 특산물 선물로 소비자에게 각광 받고 있는 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날 햅쌀 출시 행사에 쌀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밥심, 쌀심, 아침밥 먹기’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광양쌀 알리기 운동에 적극 나섰다.

허순구 조합장은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햅쌀을 예정대로 출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광양쌀을 추석 선물 등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쌀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늘이 내린 광양쌀’은 추석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소포장 5Kg 22,000원 제품으로 출시되고 광양농협 로컬푸드&하나로마트 본점(760-2290)과 용강점(762-5790)을 비롯한 광양농협 사업장을 통해 구입 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